

항공사 기업을 분석한 이유

저는 항공 관련 학과를 재학 중이었고 작년 20년은 미국에서 1년동안 비행 실습을 통해 항공 운항 업계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방식이나 항공 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받은 타격 등을 직접적으로 느껴보았기에 국내 항공사는 코로나 시국에 어떠한 길을 걷게 되었고, 어떠한 대처방안으로 살아남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국내 항공사 매출 분석을 통한 기업별 대처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태블로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였습니다.

1page(출국내국인수, 방한외국인수, 운항, 여객, 화물)

출국내국인수, 방한외국인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3월, 4월에 관광객의 수요가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차트의 흐름과 내림에 상이하게 아래의 국내항공사의 전체적인 운항편수, 여객명수, 화물량 차트 또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래프에 마우스를 갖다대어 각 월별 위 아래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사들은 전체적인 여객기 운항 편수에서 화물 여객기 대비 승객을 탑승시킨 여객기의 운용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한과 출국은 대부분 여객기의 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객명수는 항공사 영업이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page (분기별 영업이익)

다음은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6월, 즉 21년 2분기까지의 국내 항공사 매출 순 TOP5 항공사의 매출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앞에서 전체적인 항공사의 여객기 운용에 있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여객명수인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탑승 승객이 줄어 영업이익이 20년 초반에 감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객명수가 줄었음에도 대한항공이 코로나 시국에 다른 항공사 대비 엄청난 영업 이익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기의 영업이익 합 차트를 보아도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아시아나 항공은 적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압도적인 흑자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객명수가 대폭 줄었음에도 대한항공이 국내 매출액 TOP 5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엄청난 흑자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곧 코로나 시국에 대한항공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 대처 방안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3page(분기별 여객수(합계), 화물량(합계))

다음은 여객명수와 모든 분기의 합계 차트입니다.

여객명수는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의 명 수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방한외국인수, 출국내국인수 그래프와 상이하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20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서 여객명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 합계 파이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분기의 여객명수는 각 항공사끼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량 추이를 보면 대한항공의 화물량 데이터가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물량 또한 마찬가지로 20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모든 항공사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파이차트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대한항공의 화물량은 다른 모든 항공사들의 화물량을 합친 양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많이 줄었고, 승객 수는 각 항공사끼리 큰 차이가 없지만, 대한항공은 화물 여객선을 다른 국내항공사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의 운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여객기 대수 데이터를 넣으면 좋을거 같다.)

5page(화물량, 영업이익 상관계도)

화물량, 영업이익 간의 상관관계 데이터입니다. 여객 명수는 줄었지만, 화물량이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대한항공이 코로나 시국에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줄었음에도 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6page(대한항공vs아시아나 대처비교(2020년 2분기, 3분기))

다음은

당시 국내 항공사를 대표하는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대처 비교입니다. 네이버뉴스를 통해 분기별 관련도순으로 4천건 정도의 웹 크롤링으로 자연어처리를 하여, 주요 이슈 관련 단어들을 빈도수별로 정리해 그 당시 각 항공사들이 코로나에 어떠한 대처 방안을 세웠는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재정난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송원동부 지매각, 아시아나는 현대산업으로부터의 인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링크) 3분기에 대한항공은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화물사업에 더 투자, 전환하려는 추세를 보입니다. 현대산업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는 무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그래프에서 봤듯이 2분기 당시 하락세를 보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모두 재정난으로 기업이 흔들렸음을 알 수 있고 3분기에 들어서 대한항공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화물 여객선 운용에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page(대한항공vs아시아나 대처비교(2020년 4분기,21년 1분기))

다음은 20년 4분기, 21년 1분기에 대한 이슈 분석입니다.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이슈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시아나, 인수, 대한항공, 통합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여 항공사의 통합을 이루어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는 완료되었고 최종적인 통합을 위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7개국의 기업결합심사의 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아시아나 4분기에 기사 링크)

8page(로고 이미지를 통한 워드클라우드)

네이버 open API를 통해 최신 기사의 제목과 내용 요약 데이터를 받아 워드 클라우드를 통

해 각 항공사별 로고에 주요 키워드를 입혀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로고의 올해, 역대, 매출, 흑자, 화물 등 이러한 키워드를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항공사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대한항공이 타 국내 항공사에 반해 발 빠른 화물 여객선 전환 대처를 통해 흑자를 볼 수 있었고 국내 항공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시국에 국내 항공사의 매출 비교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에, 흑자를 낸 항공 기업이 취했던 대처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이커머스 기업들의 코로나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